

일본 전력회사, 금년에 연료비 급증 전망

일본의 주요 전력회사는 정기검사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화력발전으로의 대체 등에 따라 금년에 연료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. 향후 일본에서는 전력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

- 일본에서는 정기검사를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이에 따른 화력발전으로의 대체 등의 이유로 석유·LNG 등의 조달비용이 급증하면서, 금년도(11.4~12.3)에 주요 전력회사의 연료비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
- 발전량 기준 상위 5대 전력사(도쿄[東京]전력, 간사이[関西]전력, 주부[中部]전력, 도호쿠[東北]전력, 규슈[九州]전력)의 금년도 연료비는 전년도 대비 약 2조 엔 증가할 전망이다
 - 도쿄전력은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발전소의 가동정지로 화력발전소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금년도에 연료비가 7,000억 엔 정도 증가하여 약 2.2조 엔에 이를 전망이다. 이 회사는 전년도에 경상이익이 3,176억 엔이었으나, 금년도에는 대폭적인 적자가 예상
 - 간사이전력은 현재 원자로 11기 중 7기가 정지 중으로, 연료비가 9월 말까지 1,000억 엔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. 연내 3기가 추가로 정기검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연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규부전력은 연료비가 금년도에 4,200억 엔 증가하여 1.1조 엔에 이를 전망. 이 회사는 1951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영업적자 및 경상적자가 예상
- 도호쿠전력은 지진 영향 및 정기검사에 따라 원자로 4기 모두가 정지되어 연료비는 1,000억 엔 정도 증가할 전망. 원자력을 화력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2,000억 엔 전후의 비용증가가 예상
- 규슈전력은 스트레스 테스트(내성검사)에 따라 겐카이(玄海)원전의 재가동이 지연되어 4~9월기 연료비가 전년동기대비 1,350억 엔 정도 증가할 전망. 겐카이원전의 연간 연료비 증가는 3,0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

□ 이처럼 일본 전력회사의 연료비 증가에 따라 향후 일본에서는 전력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이전 등 산업공동화 우려도 더욱 커질 전망

○ 일본에서 원자력발전 전체를 중단할 경우 전력요금은 2012년에 19.4% 상승할 것으로 추정¹⁾

- 일본에는 17개 원자력발전소에 54기의 원자로가 있으며, 7월 23일 현재 38기가 정기검사 등의 이유로 가동정지 중에 있으며,²⁾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스트레스 테스트(1~2차)는 약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1. 7. 26), 朝日新聞(2011. 7. 21)

1) 富士通總研經濟研究所(2011.7.15), 「原子力発電所稼働停止によるわが国經濟への影響」.

2) 日本原子力産業協會 홈페이지(<http://www.jaif.or.jp/ja/news/2011/jp-npps-operation110723.pdf>)